

기술 강국을 주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가 함께 하겠습니다!



이 자료는 7월 29일(목) 석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진 1매

\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29일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보 도 자 료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

•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네트워크실 지명근 실장(044-390-0610), 김혜정 연구원(044-390-0614)

•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90-0230), 정민규 책임(0231)

## TIPA, KAIST 이광형 총장 초청 강연 열어..21세기는 지정학이 대세 될 것

-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대전환 시대 맞아, 中企 R&D지원 조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도모 -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'TIPA')은 7월 27일(화) TIPA 본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(이하 'KAIST') 이광형 총장을 초청해 조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강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.

TIPA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대내·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△유망기술, △핵심기반기술, △디지털 경제 등 '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습 문화'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.

올해는 코로나-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R&D지원 전문기관의 직원으로써 갖춰야할 직무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인 KAIST 이광형 총장을 모셨다.

이 총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, “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인류 사회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”며 “과거 국제질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정학(地政學)에 따랐지만, 21세기는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정학(技政學)이 대세가 될 것이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서, △감염병, △인구절벽, △인공지능과 메타버스, △국제정치 등 국제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담은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.

TIPA 이재홍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“코로나-19의 장기화에 따라 업무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‘대전환의 시대’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살펴보기 바란다”며,

“중소기업 R&D전문기관의 직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표출하고 도전하라”고 직원들을 위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.

한편, TIPA는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참여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, 직원들의 청강 수요 충족을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진행 하였다.

더불어, 오프라인 참여인원은 강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, 손 소독 의무화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,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지정 좌석제로 안전하게 진행됐다.

#### <사진 설명>

(사진 1) TIPA 이재홍 원장(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)과 KAIST 이광형 총장(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)이 강연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